

## 3) 아담의 계보(5:1-6:8)

- 5:1-2/ \* 1:27-28의 반복. 인류의 새로운 시작을 암시.

\* 인간은 하나님의 혈통 가운데 있고(6:2 '하나님의 아들들') 하나님의 강복의 수혜자.

\* 가인의 계보가 아닌 이 계보를 통해 창조 질서가 영속함을 밝힘.

- 5:3-5/ '셋': \* 아버지의 모양과 형상으로 태어남. 하나님의 형상과 강복이 영속됨.

\*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인류에게 남긴 것처럼 아담은 죄성과 그 결과(죽음)와 자기 형상을 셋에게 부여.

'자녀들을 낳았으며': \* 이름이 나오지 않는 아담의 다른 자녀들.

\* 대표인 만아들(셋)을 통해 허락된 하나님의 형상과 강복을 함께 누리는 상속자들.

'구백삼십 세': \* 셋의 후손들의 긴 수명을 예고. 모세 율법에서 긴 수명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복의 산물.

\* 이사야 65:20/ 장수는 종말의 때에 나타날 축복의 특징.

'그는... 죽었더라': \* 하나님의 경고의 진실성과 범죄한 반역자에게 부과된 하나님의 벌이 수행됨.

\* 계보에서 각 반복구의 마지막 단어.

\* 롬 5:18-21/ 율법 이전에 아담의 불순종으로 인한 죄의 결과로 모든 사람이 죽음.

그리고 그리스도의 순종으로 인한 결과로 믿는 사람이 영생을 얻음

- 구원은 율법이 아닌 믿음으로 허락되는 은혜임을 입증.

- 5:6-11/ '셋(대체)', '에노스(사람-아담): 셋은 아벨의 계승자. 셋이 에노스를 낳은 것은 아담 계보의 영속성을 반영.

- 5:12-20/ '마할랄렛': 하나님에 대한 찬양, 또는 하나님을 찬양하는 자를 의미

- 5:21-24/ '에녹': \* 셋 종족의 일곱 번째 구성원.

'하나님과 동행': \* '함께 걸었다'는 의미. 아담, 노아, 아브라함,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과 누릴 교제를 예고.

\* 시편: 생명과 풍요를 의미 (56:13; 116:9).

\* '하나님과 동행'을 반복함으로 에녹의 수명이 짧은 것이 죄에 대한 벌이 아님을 강조.

'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시므로': \* 죽음을 경험하지 않음. 사람은 죽기 위해 태어난 것이 아님을 암시.

\* 히브리서 11:5-6/ 에녹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믿음의 모범으로 제시

- 5:25-27/ '므두셀라': 최장수(969년). 그의 죽음과 홍수와의 연관성.

- 5:28-31/ '라멕': \* 노아의 아버지. 노아를 위해 하나님께 소망을 담아 기도한 경건한 인물.

\* 같은 이름을 가진 가인의 라멕과 극명하게 대조 (777년 생존 - 벌이 77배이리로다)

\* 아들 이름(노아)의 의미: 위로/안식. 노아의 특별한 지위를 가리킴.

고통스러운 땅의 저주로부터 벗어나 온전한 창조의 회복을 소망.

- 5:32/ '노아가... 낳았더라': 10장의 셈과 함과 야벳의 족보를 예비. 아담과 아브라함 사이에 위치한 노아의 지위.

'셈': 노아의 만아들. 아브라함의 선조.

'함': 막내. 아버지의 가게에서 수치스러운 아들.

'야벳': '넓히다'는 뜻.

- 6:1/ '...번성하기 시작할 때에': \* 심판의 이유인 도덕적 타락(5절)에 하나님의 아들과 사람의 딸들의 결혼이 기여.  
\* 번식은 하나님의 강복의 실현이지만 하나님이 세우신 도덕 질서에 대한 순종이 필요.
- 6:2/ '하나님의 아들들'에 대한 다양한 견해:
  - 1) 천사: \* 고대 신화, 에녹1서 등을 근거  
\* 반론: 창세기 6장의 주제는 천사가 아닌 인류의 소산에 대한 것.  
예수님은 천사가 결혼하지 않는 존재임을 분명하게 말씀하심(마 22:30)
  - 2) 인간 재판관이나 통치자: \* 유대교의 이해, 왕들을 신의 아들로 신성시한 고대 근동의 개념을 근거  
'자기가 좋아하는...'에서 일부다처제를 추구했던 가인의 후손 라멕의 흔적을 발견.  
\* 반론: 고대 근동에서 '신들의 아들들'이라는 왕의 무리에 대한 증거가 없음.
  - 3) 셋의 후손: \* 앞서 가인의 계보와 셋의 계보를 대조. 셋의 계보는 8절 노아의 죽음으로 끝남.  
셋 가족은 경건한 유산의 바깥에서 결혼했고 이는 도덕적 퇴보를 낳음.  
모세오경에서 이스라엘을 '하나님의 자녀'라고 부름. 어거스틴, 루터, 칼빈의 견해.  
'사람의 딸들의... 자기들이 좋아하는': \* 셋의 후손이 종족 바깥에서 제한없이 결혼함으로 인류의 타락을 가속화.  
\* '좋아하는', '보고', '삼는지라(취하다)': 하와와 범죄의 반향.
- 6:3/ '내 영': \* 하나님의 인격적 임재를 가리킴(1:2). 하나님의 오랜 인내가 끝나고 더 이상 심판을 유예하지 않으심.  
\* 피조물에 생명을 주는 권능의 원리로서 생존에 필수적인 자신의 '영'을 거두심(2:7).  
- 물을 되돌리고 생명이 다시 번성하게 만드는 것은 하나님이 '바람(루아흐)'에게 맡긴 일(8:1).  
'영원히 함께 하지 아니하리니': 하나님이 개입하여 자신의 권능을 주고 생명을 주는 영을 제거함.  
'그들이 육신이 됨이라': 육체적인 생명의 내재적 허약함이든 도덕적 결함이든, 인간의 무력함과 연약함.  
'120년': \* 두 가지 견해 - 인류의 축소된 수명 / 홍수 이전의 은혜로운 기간  
6:1-4의 주제가 '인간의 필멸성'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'인류의 축소된 수명'으로 보는 쪽이 더 타당.  
모세에 의해 이상적인 성취로 제시된 후에 70년이 현실적인 규범으로 이해됨(시 90:10)
- 6:4/ '네페림': \* '타락한 자들'이라는 의미. 민 13:33의 아낙 자손과의 관계 - 첩자들의 과장적 공포.  
같은 집단이라면 이들이 홍수 후에도 살아남았다는 의미임으로 받아들일 수 없음.  
\* 단순히 종족 외 결혼으로 인한 홍수 이전 사회의 사악함을 서술하기 위한 하나의 증거로 이해해야 함.  
'용사': \* 전사 계급으로 폭력적인 업적으로 인한 악한 명성(셈)을 가진 자들.  
\* 이들과는 다른 노아에게 하나님은 만아들로 아들로 '셈'을 주심 - 아브람에게 '아브라함'이라는 이름을 수여.
- 6:5/ '보시고': 하나님의 아들들이 사람의 딸들을 '보고' 와의 대조. 번식의 강복을 죄의 결실로 수확.  
'가득함', '모든', '항상': 당대의 타락상에 대한 강조. 이들에게는 가인과 같은 자비가 허락되지 않을 것을 예고.  
'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': \* 악은 행동 이전의 인간의 본성과 성품에 속한 것.  
\* 홍수가 인간의 본질적인 죄악된 성품을 변화시키지 않음.
- 6:6/ '마음에 근심하시오': 인간의 악한 '마음'에 대한 하나님의 반응은 '마음'의 근심하심.  
'한탄하사(인나헬)': \* 구약에서 '후회'로 번역되는 단어.  
\* 창조의 실수를 두고 후회하심이 아닌, 하나님의 고통의 근원이 인간의 타락에 있음을 강조.  
\* 피조물과 친밀한 관계를 가지시며 죄인의 반역을 고통스러워하시는 인격적인 하나님을 증거.
- 6:7/ '지면에서 쓸어버리되': \*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새로운 정책 - 1장의 창조 활동을 근본적으로 무효화하심.  
\* 아담의 범죄로 땅을 저주하신 것과 같이 인간의 범죄로 생물이 고통 당할 것.
- 6:8/ '은혜': \* 아브라함(18:3), 모세(출 33:12)에게도 임한 하나님의 호의  
- 특히 노아와 모세의 유사성에 주목(출 33:14/ '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')  
\* 노아에게 베푸신 은혜는 의로운 행동의 대가가 아니라 죄에도 불구하고 인간을 보존하시려는 하나님의 호의.  
\* 노아의 의로움은 하나님이 약속으로 주신 은혜의 선물인 믿음의 결과(롬 4:13-16).  
\* 노아의 경외함은 구원을 가능하게 하는 의를 낳는 믿음(히 11:7).  
\* 노아는 라멕이 기도했던 인류의 위로인 동시애, 인간의 죄로 인한 슬픔을 겪는 하나님의 위로.